

주제: 예배 개혁을 위한 제언

강사: 이정현 목사

1. 서론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다.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채 의식적 요소와 무리한 상징들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타락한데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교회의 개혁은 곧 예배의 개혁이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자기 표현적 기능이 예배였기 때문이며, 예배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 또는 갱신이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것에 대한 불완전 내지는 위험성을 전제하고 있는 용어이다. 비록 그 같은 전제가 없더라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생명없는 의식화에 빠질 염려때문에 개혁은 필요하다.

예배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 하는 이유로는, 현대교회가 본래의 예배가 추구하던 목적을 지속해 나감으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의의를 공교히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예배는 현대를 사는 사람과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나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예배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화된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예배갱신을 말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내용을 전혀 도외시하지 말라는 것과, 예배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변화는 회중을 고려함으로 회중에 적합한 예배로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것이다.

예배 갱신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리마문서, 빈야드 운동, 구도자예배, 열린예배-을 볼 때에 세계교회는 분명히 예배 갱신을 원하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하나의 예배를 갖는데 실패했다. 한 예를 들면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모인 WCC 산하 ‘신앙과 직제위원회’(Faith and Order Commission)에서 채택한 세례성만찬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BEM)에 관한 리마문서도 WCC에 가입한 전 교회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결국 또 다른 한 예배가 되고 말았다. 세례와 성만찬에 주안점을 두고 새롭게 예배를 구성함으로 예배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했으나 이것 역시 실패했다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한국교회 예배에 크게 영향을 끼친 빈야드 운동과 구도자 예배 그리고 열린예배도 구체적인 예배갱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예배의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다양성으로의 발전은 있었으나 통합성에는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배에 관한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예배학과 실제적 입장에서 현 교회가 안고있는 예배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이것을 근거로 한국교회 예배갱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책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예배 신학적 및 실행적 차원

예배학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제적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같은 고찰은 예배갱신을 위한 기초작업이 된다.

1)이교적 예배 이해의 문제

우리나라 예배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독교 예배에 이교적 요소가 많이 가미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4300여년의 샤마니즘과 2000년의 불교, 1500년의 유교라는 이교적인 토양속에

서 자라온 민족이기 때문이다. 장구한 이교적 종교의 배경에 비해 기독교는 2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백일기도회, 장례식, 추도식 등에서의 유교적 형식과 예배에서의 기복적 신앙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함께 특별기도회를 갖는 것이나, 사람이 별세했을 때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인류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배의 주 관심과 우선순위가 구복적 샤마니즘이거나 예배의 대상이 조상이 된다면 경계해야 할 요인이 아닐 수 없다.

2) 예배에 관한 협의적 차원에서의 이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은 예배와 생활을 조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 예배와 삶의 예배를 연결시키지 못함으로 큰 괴리를 안고 있다. 바울과 칼빈은 모든 삶 자체를 예배로, 세상을 성소로 보았다고 하듯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다(드 중, 개혁주의 예배, 서울:CCC, 1997:183). 공적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사적예배 또는 일상 생활에서의 예배를 생각해야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예배의 광의적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협의적인 뜻만 생각한다면 삶 자체가 공 예배의 구현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소위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흠어지는 예배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된다.

3) 성만찬이 제외된 말씀 위주의 예배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배요소이다. 원래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모하면서 개신교가 카톨릭적인 것을 싫어하여, 의식적인 요소들을 버리다보니 예배의 주가 되어 있는 예전적 요소를 제거하게 되었다. 말씀이라는 기둥을 높이 세움으로 자연히 성찬이라는 부분을 약화시키고만 것이다. 생명 없는 의식을 반대하여 새롭게 출발한 개신교의 예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찬 없는 말씀만의 또 다른 의식주의 예배로 고착되고 말았다. 그래서 현대 개신교 예배는 성만찬이 제외된 말씀위주의 예배로 전향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두 기둥이 균형있게 발전함으로 원래의 예배로 복원되어야 하겠다. 은혜의 수단으로써의 성찬, 교회의 표지로서의 진정한 성찬을 복구함으로 예배의 2부 구조를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4) 전통과 자유를 조화시키는 예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기계적 형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예배의 순서를 기계적으로 제시해 놓고 그것을 준하여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파나 개 교회마다 예배의 자유는 당연한 현상이다. 예배의 자유는 방임과 구별된다. “예배는 분명한 신학과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명맥을 이어온 교회가 지닌 전통이라는 요소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라는 부분과 본질이라는 부분은 언제나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유 없는 전통에의 집착은 또 다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불러오며, 전통을 무시한 자유는 방임과 무질서로 빠질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한다”(정인교 1997:225-226). 우리의 예배는 신학적 본질과 원리를 근거로 언제나 정형화되되, 기계화되지는 않으며, 형식화를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자유의 기본정신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한다.

5)준비된 예배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평신도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공 예배에 참여해야 하듯이 예배 인도자인 목사는 더욱 더 철저히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시간, 몇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왜 다른 예배요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가? 공 예배의 기도, 찬송, 성경읽기, 헌금, 광고, 새신자 영접 등등을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련되게 준비함이 필요하다. 예배의; 실행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준비없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가볍고 소홀히 취급하게 하고 쉽게 식상하게 만든다. 은혜롭게, 새롭게, 박진감 있고 무엇보다 성령이 역사 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잘 준비되어야 한다.

3. 한국교회의 예배갱신 방향

한국교회는 웅장한 예배당, 아름다운 음악, 유창한 설교, 교양 있고 세련된 청중, 어느하나 나무랄것이 없이 훌륭하다. 그러나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예배 안에서 갱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몇가지로 나누어서 예배갱신의 방향을 고려해 보기로 하고, 먼저 웨버가 주장하는 예배갱신의 원리를 말하고자 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예배갱신의 원리로 삼았던 네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웨버 1988:248-249). 첫째, 기독교예배는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셋째, 교회에 이미 기본적인 예배의 신학과 풍습이 세워져 있다. 넷째, 고정된 예배의 내용을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방법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예배갱신도 이 네가지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예배신학의 정립이다.

모든 신학 활동은 성경과 신조에 근거하여야 하듯이, 실천신학의 예배학 분야도 그렇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신조와 역사적 전통교회가 실행하여 온 것들이 기초가 되어 예배신학이 이루어져 왔다. 교과마다 예배신학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교과 안에서도 개인마다 상이한 예배신학을 정립할 수 있지만 개혁과 장로교회의 예배신학은 공통분모가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의된 한 예배모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모범에서 산출하여 강조하는 부분은 예배를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으로 대별하여 이 두가지를 온전히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는 말씀과 성찬이고, 이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 헌물인데 이것들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곧 예배신학의 정립이다. 이 부분에 대해 회중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2)통합적 자유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경축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회중의 수동적 예배 참여가 아닌 능동적 예배참여가 되어야 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적극적인 예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에서는 고정된 요소와 상황에 따른

가감의 부분이 자유정신 안에서 어우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경건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경축적인 예배는 흔히 축제적인 예배로 불리어 지는 것으로 감상주의 내지 주정주의적 경향을 지양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환희, 또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자세로서 예배하는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 4-5장에 나타난 예배자들 처럼, 성부와 성자에게 각자의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면서, 경건함과 예의가 있고, 최고의 경축이 있듯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3) 예배의 각 순서와 진행에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늘 경계해야 할 것은 무미건조한 형식된 예배이다. 뜻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거나, 대상도 없이 기도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거나, 말씀에 주의함 없거나,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참여하는 행위 등등은 예배 안에서 추방되어야 할 내면적 부분들이다. 그래서 예배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는 각 예배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자원함과 적극적인 자세로 순서에 동참할 때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체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는 관계가 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각 순서가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역동적이 되려면 진행자가 성도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이런 예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4) 예배용어를 바로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

먼저, 예배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말아야 한다. ‘생일축하예배’, ‘박사학위 취득축하예배’, ‘귀국환영예배’, ‘회갑기념예배’, ‘야외예배’, ‘추모예배’ 등에서 사람을 위하는 행사에 무분별하게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임으로 삼가야 한다. 이러한 행사에는 오히려 ‘환영회’, ‘축하회’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목사 위임식이나 장립식, 교회설립은 성경과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예식임으로 교회적 예배로 드릴 수 있다. 혼인예식과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목사의 직임 중에 하나이며, 교회적인 일이므로 혼인예배, 말인예배라고 한다. 물론 혼인 예식의 목적은 신랑신부의 혼인에 있고, 장례식은 죽은 이의 장례에 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므로 예배자를 붙일 수 있다. 가정예배라는 용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컫는 말이므로 이것 역시 옳은 말이다.

예배 인도자가 간혹,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할까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중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나 ‘다같이 예배합시다’이다. 누가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인도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할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이다. 기도는 회중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므로, ‘기도하시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기도와 연관하여 하나 더 말한다면, 기도의 말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의 과거형 사용은 옳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불손한 어투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주일 저녁 예배시 가족들이나 기관에 찬송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흔히 특송이라고 하며, 특송자를 소개하면서 때때로 ‘특송을 불러 주시겠습니까’라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또는 ‘특송을 하시겠습니까’로 해야 옳다. 예배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한 순서로 진행되는데, 인도자가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므로 예배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말씀을, 회중들을 의식하여 올린다고 하면 안되고, 본인이 읽을 경우는 '봉독하겠습니다'로, 타인이 읽을때에는 '봉독하시겠습니다'로 해야한다.

예배 중 흔히 사용하는 '할렐루야'란 용어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원래 예배의식중에 사용되던 말이지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인사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강사를 소개해 놓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끼리 서로 인사를 하려면 살롬으로 하든지, 살롬레카(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적당하다.

이렇듯, 예배의 용어들을 잘못 사용하므로 예배의 개념이 흐려지고, 더 나아가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예배갱신의 하나로 예배에서 바른말을 사용해야 한다.

5)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가미된 예배개발을 모색하라.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짐으로 상당한 부분에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게 사실이다. 좋은점도 많이 있으나 한국의 멋이나 가치있는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서양문화에 동화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복음 자체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동일하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진다. 이런면에서, 복음을 담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는 한국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국악적 찬송 작곡, 예배시 한국 전통악 사용, 성직자의 예배복장, 예배당 내 외부의 상징들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멋이요,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기되어 잃어버렸으며, 어릴때부터 한국적인 것보다 서양의 것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색해 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조금씩 예배안에 우리 문화를 도입하여 진리 위에 문화의 옷을 입힐 때 이 땅을 위한 복음으로 정착될 것이다.